

요약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대부분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 비중이 높고, 민영보험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비공식 돌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향후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자는 이러한 돌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노년층'(85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은 약 2.1%로, 2000년~2019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비중이 약 60%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표 1) 참조

〈표 1〉 주요국 장기요양 지출의 GDP 비중 변화 추이(2000~2019년) 및 지출 구성 비교

국가	GDP 비중('00년)	GDP 비중('19년)	증가율	공공 부문	본인 부담	민영보험
네덜란드	2.7	4.1	+50	94	6	0
독일	1.4	2.2	+55	70	24	6
덴마크	1.9	2.1	+11	90	10	0
미국	1.1	1.3	+17	71	19	10
스페인	0.5	0.9	+62	79	21	0
싱가포르	-	-	-	51	40	0
영국	-	2.3	-	74	26	0
이탈리아	1.6	1.8	+13	75	25	< 1
일본	0.7	2.1	+212	92	8	0
캐나다	1.3	2.1	+61	78	18	3
평균	1.4	2.1	+60		-	

자료: Jonathan Gruber(2023.11), "LONG-TERM CARE Around the World"

- 최근 발표된 논문¹⁾에서는 주요 10개 선진국²⁾을 대상으로 각국의 장기요양 제도 현황, 특징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해당 논문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1) Jonathan Gruber(2023. 11), "LONG-TERM CARE Around the World"

2) 해당 논문의 분석 대상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총 10개국임

- 주요국 공통적으로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고, 민영보험의 역할과 개인의 준비는 미흡함
 -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큰 미국에서조차도 공공 부문(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 전체 장기요양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의 비중은 약 10%임
 - 미국 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의료서비스 비용 지출이 날로 높아지며 연방, 주 정부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향후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장기요양지출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황임
 - 공공 부문의 지원이 없다면 장기요양비용은 각 국가의 대다수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넘어서며, 이는 특히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국가별로 시설요양(Nursing Home) 및 재가요양(Home Care)이 전체 장기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를 보임
 - 국가별로 시설요양 및 재가요양 비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재가요양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남
 - 전체 장기요양지출에서 재가요양의 비중은 스페인이 가장 낮은 23%를 일본이 가장 높은 63% 수준이며, 대상 주요국 중 노령화 수준이 제일 높은 독일(49%)과 일본이 재가요양의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미국에서는 1981년에는 메디케이드의 장기요양지출 중 시설요양이 99%를 차지했으나, 이후 재가요양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6년부터는 재가요양의 비중이 시설요양의 비중을 넘어섰음

〈그림 1〉 미국 메디케이드의 장기요양 서비스별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Jonathan Gruber(2023. 11), "LONG-TERM CARE In The UNITED STATES"

- 비공식 돌봄이 전체 장기요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자는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 노인 중 소수만이 공식 돌봄(예: 시설요양 또는 재가요양(유급 가정 돌봄))에 의존하는 반면, 대다수는 가족이나 기타 무급 간병인으로부터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적 돌봄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비공식 돌봄의 비용 추정 결과, 이는 미국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비공식 돌봄인 것으로 나타남³⁾
 - 2018년 기준, 비공식 돌봄 비용의 추정치는 약 860-1,51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의 시설요양(Spending for nursing home, 약 1,710억 달러), 재가요양(Home care costs, 1,080억 달러)과 유사한 수준임

3) Jonathan Gruber(2023. 11), "LONG-TERM CARE in the United States"